

현대 과학으로 방사선 노출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독일 방사선 협회 부회장인 헬무트 알트란드에 의하면, 현대 과학 기술을 적용하여 환자들이 방사선에 많이 노출되는 것을 줄일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독일 연합 뉴스와의 대화에서 알트란드는 “새로운 과학 기술인 MRA 즉, 자기공명장치를 많이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방사선과 의사들은 “정해진 의료보험수가에 비해서 새로운 기술은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서 문제가 많다”고 한다. “보험수가가 계속 내려가게 된다면 이러한 새로운 현대 과학기술을 적용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방사선 검사의 대용 방법인 내시경 검사나 초음파검사도 소홀히 다루서는 안된다.” 하지만 방사선 검사(X선 검사)는 가능하면 안하는 것이 좋지만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나 유방암 예비 검진에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진단학적 관점에서 보면 방사선 노출이 건강을 심하게 상하게 할 위험성은 적은 편이다.” 알트란드의 충고는, “방사선을 사용하는 것을 백안시해서는 안된다. 근본적으로 사용과 위험성을 적당히 조절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몇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린트겐 수첩제도를 의미있는 일로 보고 있다.

이 수첩을 통하여 의사들은 환자의 예전 린트겐 사진을 비교하여 환자의 이력을 볼 수 있게 됨으로써 새로운 촬영을 절약할 수도 있다. 더 좋은 점은 응급이나 입원시에 보다 나은 치료를 위한 기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아직은 환자가 어떤 병명을 가지고 종합병원으로 보내질 때도 그 곳에서 또 다시 새로운 검사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보건 환경부 장관인 유르겐 트리틴은 의학적 검사시에 국민들이 방사선 위험에 덜 노출되게 할 작정이다. 지난 주에 그는 린트겐 이용규정이 마무리 수정 단계에 있음을 발표했다.

내시경 검사나 초음파 진단같이 방사선 위험이 없는 검사 방법의 이용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 독일 국민들의 방사선에 노출된 위험은 줄기는 커녕 오히려 늘어났다.

〈출처 : Sueddeutsche Zeitung 2000/08/06〉

